

창세기(14)

창세기 2 장 18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 새와 들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깨닫고 바로잡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 부부간에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 다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성경 창세기 2 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자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부패하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또 특별히 도와야 될 이브는 오히려 남편을 돕지 않고 남편이 죄를 짓도록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가 21 세기에 들어와서 주위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남편들이 여인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아내는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80 이 넘어 왜 독신으로 살았냐고 물으니까 극장

구경을 갔는데 앞에 있는 여자의 옷을 모르고 밟았는데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며 ‘어머나, 죄송합니다.’ 하고는 웃으면서 ‘아니, 난 당신이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평소에 남편에게 못살게 굴었으면 당신이 내 남편인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치마를 밟으면 괜찮은데 남편이 밟으면 화가 난다는 얘기에요. 남편이 밟은 줄 알고 화를 버럭 냈는데 다른 남자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나는 장가 안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말다툼을 잘 하는 여인, 화를 잘 내고 다투는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내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31 장에 있습니다. 잠언 31 장대로 아내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고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 이 세 가지 태도만 가지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좋고,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편안한 맘에 새기면 되는 것인데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목상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또 남녀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읽어 보시죠. 고린도전서 7 장을 보면 남녀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사도 바울이 ‘내 의견이다.’라고 하고, 어떤 말씀은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 해 놓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형제자매가 나에게 알려주는 말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전환점에 이를 때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죽었다고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신 분명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로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약교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며 은혜시대의 교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절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배교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카 5 장에 보면 주의 날이 금방 도래했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첫째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정립하니깐 많은 목사님들이 따지러 왔더래요. “예, 맞는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성경 외에 것을 얘기하면 나는 얘기 안할 테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래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말이 막히니까 화를 내면서 “우리 성경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 했데요.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람이 화가 나면 말씀이 팔리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거기에 내 생각이 나오고 세상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와 장로라 해도 거룩한 척 해도 입 벌릴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거룩한 사람이요, 아무리 겉으로 사랑스럽게 생겼어도 세상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는 바로 돕는 배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목사 사모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사모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인은 도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책임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을 해도 내가 돕다가 남편이 잘못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남자는 다 결재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여자는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주님 앞에 여자입니다.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남편의 일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아내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많은 여인들이 누가복음 8 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생업이 없이 계속 복음만 전하니깐 생활을 해야 하기에 스잔나

요한나 같은 여인들이 주의 사역을 물질로 섬기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는 여인입니다.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은 상관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의 아내입니다. 신부! 약혼한 신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21 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거기를 채우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잠들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카 4 장 14 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마태복음 27 장을 보아도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 즉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올라갔다. 이것이 첫 휴거지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느냐? 그때 구약성도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올라갔을 것이고 다윗도 올라갔을 것이고 이삭도 야곱도 올라갔을 것이고 요셉도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잠자던 구약성도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5 장 51 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기 본문에서 깊이 잠자다라는 얘기는 잠시 동안 아담을 죽였다는 얘깁니다. 무의식상태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 15 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느니라. 그래서 예수그리스도 역시 아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모형이고 마지막 아담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 장 22 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을 안 하면 살리는 성령을 주셨는데도 이 일을 안 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결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택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로다.

4 대째 여호와와 증인이었던 어떤 미국 할머니가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로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어? 여호와와 증인만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있고 세상 신이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어떨 때 한 절 요한복음 3 장 16 절이 한 방 치니까 그냥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말씀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잠을 자더랍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기 전에 성도들을 거둬 나게 하시면 됩니다. 거둬 나지 않은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졸리지요. 거둬 났으면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졸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 거둬 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깊이 잠든 겁니다. 예수님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흘 밤 사흘 낮을 예수님께서도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우리를 꺼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 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9 절부터 보면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또 그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결국 이 땅에서의 결혼!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무슨 모형이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결혼하러 오셨잖습니까? 결혼하러 오셨는데 신부들이 죄가 있으니까 첫 번째 오셔서 죄 때문에 먼저 죽으신 거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꺼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꺼내어서 우리는 그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비유를 들을 때 항상 땅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Kingdom of Heaven 을 통해서 Kingdom of GOD 을 설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기가 천국이 된 것처럼 저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사람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바람나도 끝까지 바로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난리가 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보다도,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 5 분 설교합니다. 신랑은 그리스도 같이 하라. 또 아내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라. 이렇게 될 때 당신들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육신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태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신 성령 썩지 않는 씨를 통해서 썩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다 포기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백배를 받는다고. 자식을 어떻게 백배를 낳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었어요. 육적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포기했을 때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아내들이 자녀를 쑥쑥 낳아주면 불평 안하고 쑥쑥 낳고 잘 키우면 젓 잘 먹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멕시코 가보면 예베드리다가도 젓을 막 먹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야! 아직도 이곳은 은혜로운 곳이구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므로 남녀관계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엄청난 축복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